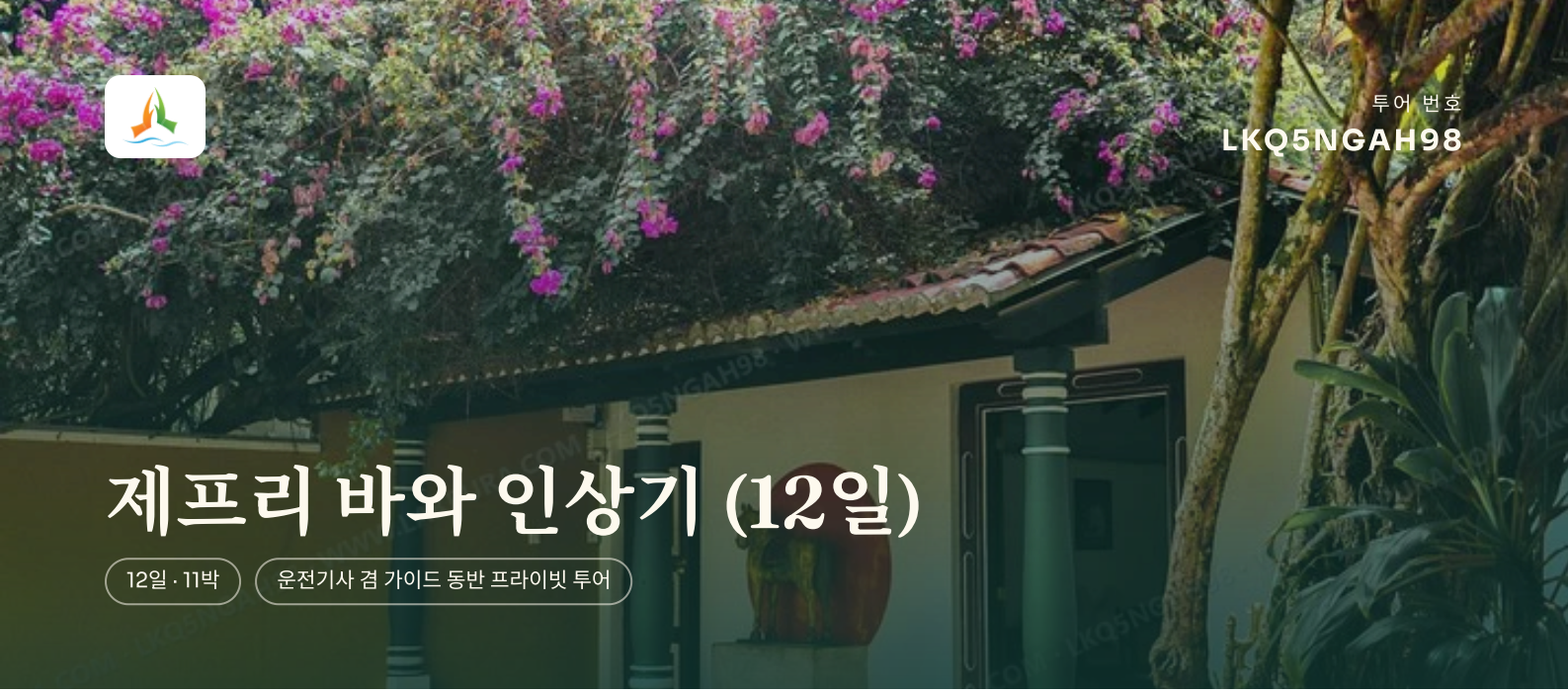


투어 번호
LKQ5NGAH98

제프리 바와 인상기 (12일)

12일 · 1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이 체험 소개

이 12일 프라이빗 투어는 Sri Lanka의 현대적 이미지를 형성한 건축가 제프리 바와의 작업과 삶을 따라갑니다. 서쪽 해안의 네고보에서 출발하여 담불라와 폴론나루와 주변의 문화 삼각지대를 거쳐 언덕 지역의 캔디로 이동한 후 남쪽 해안의 갈레와 벤토타를 거쳐 콜롬보에서 마무리됩니다. 바와가 설계한 호텔과 주택과 함께 이 일정은 섬의 고대 도시, 유적지, 야생동물 공원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역사, 자연이 조화를 이룹니다.

여행객들은 박물관 전시물이 아닌 실제로 사용 중인 바와의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리턴스 칸달라마, 헤리턴스 아훙갈라, 젯윙 라이트하우스 같은 호텔과 그의 개인 소유지인 루누가앙 에스테이트, 콜롬보 33번길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기리야 암석 요새, 폴론나루와의 폐허 도시, 미네리야의 코끼리 사파리, 캔디의 불치령 사원, 갈레의 옛 요새 마을과 대조를 이루며 바와가 그의 작품의 영감을 얻은 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어는 영어 구사 기사 겸 가이드와 함께 프라이빗 차량으로 진행되며, 연료,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가 포함됩니다. 호텔 숙박, 항공편, 입장료, 개인 경비는 별도로 준비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오랜 어업 전통을 간직한 해변 도시 네곰보에서 서부 해안을 따라 시작됩니다.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 해변을 따라 수백 년 이어온 어업 활동이 지금도 그대로 펼쳐집니다. 방문객들은 산호와 열대어 사이에서 수상 스포츠나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다양한 어종의 서식처가 되어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네곰보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자유 일정

내륙으로 이동하기 전,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Day 3 네곰보 → 담불라

내륙으로 이동해 담불라로 향하는 이날, 투어 중 처음으로 바와가 설계한 호텔을 만나게 됩니다.

헤리탕스 칸달라마

제프리 바와가 설계한 이 5성급 호텔은 주변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암석과 물, 초목 등 주변 환경을 의도적이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건축에 녹여냈습니다.

Day 4 담불라

담불라 인근에 있는 5세기 암벽 요새 시기리야를 하루 동안 둘러봅니다.



시기리야 암벽 요새

서기 5세기 카샤파 왕의 요새로 건설된 시기리야는 거대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데, 이 모습에서 '사자 바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와 테라스식 정원, 지금도 물을 담고 있는 저수조, 그리고 정상의 폐허가 된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Day 5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와 오후의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를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폴론나루와

Sri Lanka의 두 번째 주요 고대 수도였던 폴론나루와는 서기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적지에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터, 란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폴론나루와의 황금기로 평가받는 통치 시기를 이끈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관련된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민네리야 국립공원을 3시간에 걸쳐 둘러보는 사파리입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 건기에는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코끼리 대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의 관목지와 숲에는 코끼리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6 담불라 → 캔디

여정은 캔디로 이어지며, 목조 건축이 돋보이는 사원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목조 사원

거의 전체가 나무로 지어진 이 사원은, 팔각형 받침과 겹겹이 쌓인 네 잎 모양의 상단으로 조각된 기둥들이 사방이 개방된 홀을 받치고 있으며, 기둥마다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보, 서까래, 출입구 틀에도 곳곳에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Day 7 캔디

캔디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성지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불치사(佛齒寺)

부처님의 성스러운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내부에는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홀과 조각된 기둥, 금박을 입힌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8 캔디 → 갈레

남부 해안의 갈레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는 바와가 설계한 두 곳의 호텔을 더 지나며 옛 요새 도시를 탐험합니다.

헤리탕스 아훈갈라

갈레 인근의 어촌 마을 아훈갈라에 위치한 5성급 해변 호텔로, 제프리 바와가 설계했습니다. 개방형 로비에서는 바다와 하나가 되는 듯한 인피니티 풀이 펼쳐지며, 건물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부지에 그늘을 더해줍니다.

제트윙 라이트하우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옛 도시 갈레 외곽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역시 바와의 작품 중 하나이며, 품격과 고전적인 매력을 함께 담아냅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기 갈레가 그들의 본거지였던 시절에 세워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요새 안에는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가 있으며, 자갈이 깔린 거리에는 지금도 네덜란드식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9 갈레 → 벤토타

벤토타로 이동하는 이날에는 바와 자신의 전원 별장도 둘러봅니다.



루누간가 저택

1947년에 조성을 시작한 제프리 바와의 전원 별장입니다. 바와는 1940년 이너 템플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가였지만, 이곳에서 가꾼 정원이 그를 건축가의 길로 이끌었고, 이곳은 그의 경력 내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첫 번째 무대로 남았습니다.

Eco2004 · CC BY-SA 4.0

아바니 벤토타 리조트 & 스파

Sri Lanka의 한 해변에 자리한 제프리 바와의 디자이너 호텔로, 단 75개의 객실과 스위트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전망과 전통적인 환대가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와 어우러집니다.

Day 10 벤토타

벤토타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자유 일정

호텔이나 해변에서 여유롭게 쉬는 시간입니다.

Day 11 벤토타 → 콜롬보

투어는 콜롬보에 도착해 바와의 자택 중 한 곳과 도시의 주요 사원 두 곳을 둘러봅니다.

33번지 레인

바와는 1958년 이 막다른 골목에 있던 네 채의 작은 집 중 세 번째 집을 매입해 거실, 침실, 작은 주방, 하인방을 갖춘 피에다테르로 개조했습니다. 이후 네 번째 집이 비자 이를 식당과 두 번째 거실로 추가해, 시간이 지나며 조각조각 확장되어 완성된 집이 되었습니다.

켈라니야 사원

부처님이 발을 디뎠다고 전해지는 사원으로, 크고 정교하게 조각된 열반상으로 유명합니다.



강가라마야 사원

분주한 콜롬보 중심부 한가운데 자리한 조용한 사원입니다.

AKS.9955 · CC BY-SA 4.0

Day 12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BIA)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Except for Credit Card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